

##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V)

애덤스키 철학의 실천

— 신념의 힘, 희망의 힘,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힘을 일으키는 방법 —

항공우주연구소 편역

### 위험을 면하는 카르마

제가 일본 GAP를 정식으로 창립한 것은 1961년이었고 올해가 1995년이므로, 꼭 34년이 되었습니다. 애덤스키와 편지를 주고 받기 시작했던 것이 1954년경이었고 그 때부터 통산하면 41년간이 됩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상태에 빠진 적도 있고, 때로는 멋진 일도 있었습니다. 매우 큰 위험에 빠진 일도 있었습디만, 저는 위험을 면하는 특수한 카르마를 가진 인간이므로 그 점은 괜찮습니다. 특수한 카르마라고는 하지만 타고난 카르마인지, 또는 후천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 우주인의 외관은 보통 인간

위험을 면하는 특수한 카르마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우주인(우호적인 외계인)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1993년 여름에 일본 GAP은 해외연구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그 뒤에 멕시코와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로 고대 마야 유적을 견학하고 다녔습니다. 그 여행 중에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명의 외계인과 우연히 만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M씨에게서 들은 것이지만 아무래도 우주인들은 릴레이 방식으로 단체든 개인이든 호위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게 몰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보통 인간입니다. 정말 인간 바로 그 자체이며, 육체를 갖고 우리들처럼 옷을 입으며 가방을 들고 걷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현재 도쿄

시내에서는 여기저기에 우주인이 살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M씨에게서 들은 것입니다만 이 도쿄에 집결해 있는 이유를 저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인 같은 사람을 본 경우에 뒤를 쫓아 다녀도 안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내려고 해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로 분별하려면 텔레파시로 느낀다든가, 혹은 오오라로 꿰뚫어 보든가 하는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 에덤스키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요즘 제가 통감하고 있는 것은, 에덤스키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에덤스키는 잊혀진 듯한 상태입니다. 많은 UFO 관계 서적이 나옵니다만, 에덤스키의 “에” 자도 써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에덤스키의 책이 나오지 않게된 지 수 십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덤스키 문제의 핵심이 되는 활동은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인 여러분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만, 세계적인 대전쟁의 발발을 힘껏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금세기 말의 대변동 발생설에 관해서

이제 세기말에 대변동이 발생해서 지구는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지구상의 인류는 거의 사멸해 버린다는 식의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 규모의 대변동은 금세기 말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지적인 대변동은 여기저기 발생하겠죠.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것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 5년간의 금세기말에 세계적 규모로 대변동이 일어나서 대륙이 가라앉고, 바다 속으로부터 대륙이 융기한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약 20년 전에 도쿄 거리가 이제 곧 바다속으로 가라 앉는다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대지진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그러나,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은 세계에서 국지적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장 중요한 에덤스키 문제

에덤스키의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가 1950년대 중반 무렵에 아주 우연히

에덤스키의 책을 한편 발견하고 몹시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덤스키의 문제의 연장인 다른 혹성인들의 활동이 지금 치열하게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일반인뿐입니다. 또한 에덤스키가 설명했던 「생명과학」이나 「우주철학」에 관한 것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책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요즘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 에덤스키 전집은 현재 전부 10권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1권 「제 2 혹성으로 부터의 지구 방문자」와 제 3권 「생명과학」입니다. 10권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두권입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 미지의 섬으로 귀양 보내진다고 가정하고, 책을 세권 정도 갖고 가도 좋다는 허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제 1권과 제 3권, 그리고 신약성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신약성서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어서 저는 때때로 읽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책에는 금성으로부터 지구로 환생해서(다시 태어나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설명한 우주의 법칙, 특히 사랑의 법칙이 극명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 절대로 단념하지 않을 것!

제 1권 「제2 혹성으로 부터의 지구 방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션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특히 끌리는 것은 화성인 파운씨가 다방 안에서 에덤스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279 Page ~ 280 Page)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당신네들이 말하는 실망이란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말입니다. 훨씬 옛날 우리들은 신념의 힘, 희망의 힘,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힘 등을 배웠습니다. 어제 잃게 된 목표를 내일은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썩스럽습니다만, 저 만큼 이 말을 실천해 온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덤스키 문제를 제가 무려 40년이나 이전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전혀 믿지도 않았고 전적으로 바보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40년 동안 해 온 것입니다. 절대로 단념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끝까지 해 볼테다라고, 물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 인간의 위대한 신념의 힘

「단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단념할 필

요도 있습니다. 단 어떠한 일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어떠한 일은 단념해서 안되는지의 구별이 다소 어려울 뿐입니다. 제가 옛날 애덤스키 문제를 시작했을 무렵에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고 해 나간다는 강렬한 결의로서 시작했고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게 「가당치도 않은」 문제를 이렇게 오래 계속한 사람도 그다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념의 힘」, 「희망의 힘」 이것은 옛날부터 자주 논의되고 있고 특히 조셉·머피 박사의 책에서는 이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념의 힘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GAP 전문지 「UFO contactee」 122호에 시오다니노부오씨라는 93세의 의학박사가 「만물은 인간의 상념에 감응한다」라고 제목을 붙인 기사를 쓰셨는데, 그 글안에서 강력한 논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의 힘은 대단한 것이고, 그 중에서 수목이 선생의 상념에 반응해서 놀랄 만한 행동을 나타냈더라는 예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 세포는 인간의 상념에 반응한다

제 자신은 신념의 힘에 의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을 지금까지 맹렬히 실천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0이 넘는 나이입니다만 「영원히 24세」라는 기분으로 살고 있으며, “절대로 나이를 먹지 않을테다”라는 신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24에 연연하느냐 하면, 그 해 일년간은 대단히 즐거운 해였기 때문에 그 때의 기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로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인간은 즐거운 일만을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좀 전의 이야기에도 나왔듯이, 이번 여름의 해외여행에서는 아침 일찍 모임을 몇 번씩이나 해야 하는 힘든 여행이었지만, 저는 결코 늦는 일 없이 어두울 때 일어나서 민첩하게 준비를 하여 정해진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단히 건강하시네요」라며 놀랐지만, 이것은 저의 신념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체력은 쇠약해지지 않을거야라는 상념이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놀랄만한 송사리 실험

세포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상념에 의해서 어떻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초능력자 아끼야마씨가 TV에서 굉장한 초능력의 실연을 하고 계셨습니다. 유리 컵을 두 개 놓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양쪽에 송사리를 20마리 정도씩 넣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을 아끼야마씨가 신념의 힘에 의해서 한쪽의 송사리 때는 모두 바닥에 가라앉혀 버리고, 다른 한쪽

의 송사리 떼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돌아다니게 하는 상태가 되도록 상념을 보냈던 것입니다. 10분 정도 걸렸지만 결국은 송사리 떼가 신념을 보낸 대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사회자 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쪽의 송사리 떼는 바닥에 가라앉아 꼼짝 않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고 다른 한 쪽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념이 송사리에게 가서 송사리들이 그 상념의 지령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상념이 도달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끼야마씨에 의하면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념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물을 대량으로 포도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송사리로 실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초능력 개발이라고 하기 보다도 신념의 힘 개발에 대단히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애덤스키도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 상념과동으로 꽃을 움직이다

또는 상념에 의해서 꽃을 움직이는 연습도 좋습니다. 그 경우는 꽃이 움직이고 있는 광경을 이미지로써 그리면 좋겠죠.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꽃이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주꾸의 아끼야마씨 회사로 가서 우주적인 이야기를 들은 뒤 대단히 마음이 고무되어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오던 도중, 신주꾸역내의 꽃집에 장미가 5~6송이 심어져 있었는데 아름답다고 생각되어 「어이, 장미 아가씨들, 안녕」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텔레파사를 보냈더니, 장미꽃 모두가 일제히 소리를 내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단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는 거대한 빌딩 안이므로 바람은 절대로 닿지 않는 곳이며, 바닥은 돌이 깔려 있어서 전차나 사람의 보행에 의한 진동도 없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저의 상념이 도달해서 흔들려 주었던지, 혹은 제가 상념을 일으켰을 때에 근처에 우주인이 있어서 상념을 보내어 도움을 주었던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덤스키는 꽃을 자주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애덤스키가 캘리포니아주의 비스타 집에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저는 몇번이나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 뒤편에는 넓은 꽃밭이 있고, 온갖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부리의 코스모스들이 일제히 그 쪽을 향해서 획하고 나부끼는 것을 엘리스·포마로이 여사가 곁에 있다가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타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때 바람은 불고 있지 않았고, 다른 꽃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코스모스만이 일제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도 연습하면 가능하게 되므로, 항상 상념의 힘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매일 같이 꽃을 향하여 연습하시면 좋겠죠.

### 이미 실현되었다

단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릴 때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든 분도 이미지 법에 의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한가지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반복상념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미지 법입니다. 이 두가지가 중요하며, 이것은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무엇인가 바람직한 일을 실현 시킬 때에는 이것을 응용하고, 특히 병이 든 분이 나올려고 생각할 경우 「반드시 낫는다!」라는 상념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벌써 나아 있다」라는 상념을 강하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편, 이미지 법도 「얼마 안 있어 낫는다」라는 언젠가 미래에 나왔을 때의 이미지가 아니라, 「벌써 나아서 완전히 건강한 몸이 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그리라고 말해 보았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릴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점에서 신념의 힘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병이 완벽하게 나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 살아 있는 플라톤 철학

인간은 본래 완벽한 모습이 되도록 우주 창조주로부터 창조되어 있습니다. 원래 병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태양계에서는 지구인 정도일 것입니다. 이 대우주에서 인간이 병으로 고생하도록 창조되었을리는 없습니다. 모두 완벽한 건강체, 아름다운 몸이 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완전한 몸의 원형이 육체내에 겹쳐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에덤스키만이 아닙니다. 훨씬 아주 오랜 옛날,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이를 깨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플라톤 철학은 지금은 무용지물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 철학은 훌륭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근대 과학의 발달로 유물론이 만연되었기 때문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플라톤 철학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데아론입니다. 이는 “온갖 만물에는 완벽한 모습이 원형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본래의 완벽한 모습대로 모두 생성발전해서 완성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삼각형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들은 누구나 자와 콤팩스가 있으면 간단히 정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확한 정삼각형을 그렸다고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연필로 그은 깨끗한 직선이 대단히 굵게 보이고 비틀어져 보입니다. 진짜 직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가는 선을 그릴 수 있는 특수한 펜으로 정삼각형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절대로 정확한 정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도형 역시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비뚤어져 보일 뿐이며 진짜 직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인 정삼각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완벽한 정삼각형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정삼각형의 「원형」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은 말하자면 그것의 모조품으로서 종이에 그린 정삼각형을 정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개개의 물체에도 각각 완전한 「원형」이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의 몸도 완벽한 「원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말합니다.

### 인체도 완벽한 「原形(원형)」과 겹쳐져 있다

플라톤은 이 원형을 먼곳에 있는 절대자로부터 방사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그렇지 않다. 이들 원형은 만물 개개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맞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는 인체의 완벽한 「원형」이 자신의 내부에 머물고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에 의해서 실제로 육체의 교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도 완벽한 본래의 원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이미지를 그리면 그대로 육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 대우주는 자기자신

인간은 우주의 바깥 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창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산모의 자

궁 속에 있는 태아가 산모와 일체화 되어 산모에게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우주와 일체하며, 우주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대우주, 대우주는 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철학자나 종교자가 있으며, 여러 가지 뛰어난 설을 외치고 있지만 도무지 「대우주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사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강연자 자신이 신념의 힘과 이미지 법에 의해 지방에서 도쿄로 이주 후, 얼마 안되어 출판사 설립을 실현시켰던 실례를 상세하게 이야기 했다. 그 회사 경영중에 두명의 우주인이 돌연히 일을 도우러 왔던 상황도 설명했다.)

### 우주인에게 송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의 힘으로 바람직한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복 상념을 한다거나 이미지를 그린다고 하는 방법은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이것은 훌륭한 우주적인 법칙이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실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죠. (여기서 이 방법을 응용해서 훌륭한 여성 배우자를 발견한 옛날 회원의 실례를 이야기 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반복상념을 할 수 없다거나, 이미지를 그릴 힘이 약하다거나 또는 중병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후의 수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인에게 강력히 송신해서,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라는 상념파동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주겠지요. 그 실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1993년 8월에 일본 GAP의 해외 연수 여행중 멕시코에서 심한 두통으로 몹저 누운 일본 GAP 회원인 사사키 하찌로씨가 우주인에게 원조를 구하는 송신을 했더니 새벽 2시경에 돌연 호텔 창 밖으로부터 강한 빛이 실내로 내리 쏘여서 깜짝 놀랐고 곧바로 두통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방 밖으로 비행접시 같은 것이 다가 와서 「왔습니다」라는 신호를 위해서 강렬한 빛을 비추었고, 두통을 고치기 위해서 파동을 보내어 고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사사키씨는 건강해 졌습니다. 단 우주인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온갖 방법을 쓰고 난 후의 최후의 수단이지 안이하게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최후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타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신 내부의, 우주 의식의 소리를 듣는다.

바람직한 일을 실현시키려면, 반복상념과 이미지 법의 응용을 통해 실현시킬 수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타고난 어느 정도의 숙명, 다시 말해 카르마라는 것이 있으

므로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싶다고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장관이 되겠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될 숙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아무리 이미지를 그려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실현은 되지 않습니다. 그점은 자신의 내부 의식에서 오는 인상에 의해서, 자신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떠한 상태가 되면 좋을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부에 머물고 있는 우주의 의식의 소리(창조주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는 전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머리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 내부의 우주의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느낌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소리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뭔가 느낌으로서 용솨음 쳐 오른다든지 혹은 꿈 속에서 가르쳐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애덤스키 철학을 통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마음 다시 말해 눈과 귀와 코와 입, 이 4개의 감각기관으로 이루어 지는 마인드 즉 「마음」을 완전히 가라 앉히고, 내부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 오르는 느낌을 알아 듣도록 해야 됩니다.

### 우주의 창조주를 인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 창조주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일을 애덤스키는 「우주의 의식」이라고 말하지만, 우주인의 생활에는 「우주 창조주」의 개념이 근본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자고 있을 때에도 창조주의 일을 잊지 않는다고 저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요즘에는 길을 걷고 있어도 멍하니 걷지 않고 좌우 발의 보조에 맞추어서 「대우주/ 창조주시여/ 감사/ 합니다」라고 음률적으로 외치면서 걸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정신이 매우 우주적으로 고양되어 옵니다. 본래, 길을 때에 보조를 맞춰 무엇인가를 외친다는 것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반복상념이기 때문입니다. 「대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펼차는 애덤스키교의 교주이다」라는 식의 비난을 써 놓은 책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까지 내가 걱정이 되는 걸까라며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얘기는 이제까지 몇 번이나 했던 말이지만, 제 자신이 요즘 통감을 하고 스스로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인식하셨다면 다행입니다. 본래 대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이 진짜 의미에서의 우주적인 상념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의 지구인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상상의 산물 정도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종교와 관련시켜서 매우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주인이 말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지구인의 이해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인 듯 하고 아마도 과학적인 뒷받침하에 그 개념이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코 지구적인 수준을 못 넘는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여 창조주라는 이념을 갖는 편이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은 제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우주의 창조주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주인이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인 중에 무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주의 광대함, 인류가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무수한 혹성이나 무수한 천체를 지니고 있는 은하계의 생명이나 문명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다시 말해 지구인은 대우주 안의 티끌보다 못한 혹성에서 “속세”나 “인생”이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대우주 자체를 체험하는 것이, 진짜 우주적 인간이 되는데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